

## 취학전 교육상품의 기대편익에 따른 주부 유형

김 유 경\*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강사)

이 기 영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취학전 자녀의 교육이 점차 사회문제화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취학전 교육상품에 대해 주부가 가지는 기대편익을 중심으로 주부를 유형화하고 주부 유형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위의 연구목적을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학전 자녀를 둔 전업주부 4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기대편익에 따라 주부를 유형화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형별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변수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학전 교육상품에 대한 주부의 기대편익 차원에 따라 주부를 유형화한 결과, 네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각각 소신형, 조기자극 중시형, 동조모방형, 교육상품 맹신형으로 명명되었다.

둘째, 취학전 교육상품의 기대편익에 따른 주부유형 간 차이를 설명하는 판별요인은 '주부 학력 및 가치 특성'과 '자녀 특성 고려 및 교육적 가정환경' 요인이었다. 즉 주부의 조기교육에 대한 찬성도와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지지도 및 주부의 학력이 유형별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며, 자녀 반응 고려도, 교육적 가정환경, 자녀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한 주부 유형을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변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어머니의 가치관 및 학력 등의 특성 취학전 교육상품의 기대편익에 따른 주부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에 관한 가치관이나 교육목적 등을 각각 별개의 변인으로 설명했던 것과 달리 기대편익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그 하위차원들을 함께 고려하여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기대편익에 따른 주부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사회인구학적 특성 뿐 아니라 자녀교육 관련 특성 및 환경 특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교육의 현장에 보다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